

# 20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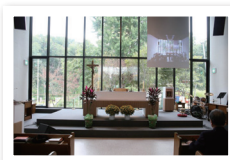
## 동편마을

새 하늘과 새 땅! 이곳에 열리다.

교우들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와 헌신으로 30여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2014년 10월 12일 성당 축성식을 거행하고 동편마을 시대를 맞이했다. 김태원(베드로)교우는 위암 수술 후 투병 중에도 끝까지 현장을 지켰다.



▲ 안양성당 축성식 1



▲ 감사패를 받는 김태원(베드로) 교우



▲ 안양성당 축성식 2



2016 안양교회 7대 관할사제로 윤병학(마가)신부가 부임하여 성찬례 및 전례적 영성을 통한 신앙성숙을 만들고 있다.

